



조선말



朝鮮語成語諺語詞典

성구속담사전

고려언어연구원 편찬



홍릉강출판사
조선민족



조선말



朝鮮語成語諺語詞典

성구속담사전



강종욱
홍조선
민족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朝鲜语成语谚语词典/高丽语言研究院编. —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5. 11

ISBN 7-5389-1295-9

I. 朝... II. 高... III. ①朝鲜语—成语词典②朝鲜语—谚语—词典 IV. H553-61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5)第 133461 号

书 名/ 朝鲜语成语谚语词典
编 者/ 高丽语言研究院
责任编辑/ 洪允善
责任校对/ 李顺子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辽宁印刷集团新华印刷厂
开 本/ 787mm×1092mm 1/32
印 张/ 29.75
字 数/ 1350 千字
版 次/ 2005 年 12 月第 1 版
印 次/ 2005 年 12 月第 1 次印刷
印 数/ 1—3 000 册
书 号/ ISBN 7-5389-1295-9/H·65(民文)
定 价/ 58.00 元

(如印装质量有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调换)

머리말

이 사전은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의 표현성을 높이고 문화수준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출판사상 최대규모로 조선말 성구, 속담을 집대성하여 풀이한 대형 언어학 전문사전이다.

속담이란 인민대중의 슬기가 간결하고도 형상적인 언어형식으로 다듬어지고 응축되어 오랜 세월을 두고 민간에 널리 전승되어온 격언, 리언, 속언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속담은 인민대중의 슬기의 앙금이요, 결정체이며 언어의 보석이요, 꽃이며 별이다.

영국속담에는 처세훈이 많고 라틴계속담은 해학이 넘치고 로씨야 속담은 우화가 특징인것처럼 한 민족의 속담에는 그 민족의 고유한 독특한 기분, 마음, 슬기가 발현되고있다. 그래서 베이콘은 한 민족의 특성과 기지와 정신은 그 민족의 격언에서 발견된다고 말하였다.

성구 역시 한 민족어의 오랜 발전과정에서 형성된것으로서 언어생활에서 하나의 단어처럼 함께 쓰이면서 하나의 뭉뚱그린 뜻을 나타내는 공고한 단어결합을 가리킨다.

일상생활에서 성구, 속담을 잘 장악하여 알맞는 자리, 알맞는 순간에 재치있게 쓴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더욱 생동해지고 풍부해지고 다채로와질것이다.

이 사전은 성구, 속담, 한자4자성구 2만여개를 종합, 집대성하여 첫째부분은 조선말성구, 둘째부분은 조선말속담, 셋째부분은 한자4자성구 이렇게 세개 부분으로 편찬되었다. 편찬함에 있어서 재래의 성구사전이나 속담사전들보다 올림말을 더욱 풍부하게 실었고 주석을 간결하게 하였으며 특히 보논이 여러분들의 리해와 사용에 도움을 주고져 필요한 경우에 생동한 례구와 례문을 주었다.

이 사전이 조선말 언어생활에서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손색없이 표달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말을 더욱 아름답고 풍부하게 꽃피워나가는데 활용된다면 더없이 기쁘겠다.

이 사전은 내용이 방대하고 편폭이 크기에 편찬중 미비한 점 역시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사용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비평과 조언이 있기를 바라마지않는다.

편찬자로부터

일러두기

1. 조선말에 풍부히 발달되어있는 속담과 성구들을 올림말로 폭넓게 담은 《조선말성구속담사전》을 편찬하였다. 여기에는 성구와 속담, 한자 4자성구를 각각 한개의 편으로 가르고 그 안에서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한자 4자성구는 생활에서 흔히 부닥치게 되는 것들만을 올리었다.
2. 뜻풀이는 본뜻과 쓰이는 뜻을 다 주는 방향에서 풀이하였다. 그러나 본뜻을 구태여 줄 필요가 없는것은 쓰이는 뜻만 주었다.
3. 례구와 례문은 되도록 주지 않았다. 다만 뜻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례구, 례문을 간단히 주었다.
4. 사전에서 쓴 부호는 다음과 같다.
 - I 례문앞에.
 - II 례구앞에.
 - / 두번째부터의 례문앞에.
 - = 뜻풀이란의 끝에 준 뜻같은 말앞에.
 - 뜻이 같거나 비슷하여 기본적인 올림말로 안내할 때.
 - ~ 한자 4자성구의 례구에서 올림말과 꼭 같은것을 나타낼 때.
 - D 용근뜻에서 다시 갈라진 뜻의 앞에.
 - * 어원이나 뜻을 리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해설앞에.

한국·**보문** 출판사 판본!

중국·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인입 출판

중국 도서시장서 **熱賣中**

〈한중사전〉

787X1092MM1/32, 2136 페이지
양장본, 가격: 구판: 120.00원
신판: 136.00원

- 표제어휘 10만개 선정.
- 표준어를 중심으로 학술어, 전문어, 외래어, 신어 및 속담, 속어 등을 망라.
- 표제어와 관련하여 동의어, 반의어, 참조어 등 참고할만한 중국어를 수록.
- 경제 용어나 무역 실무에 필요한 어휘를 많이 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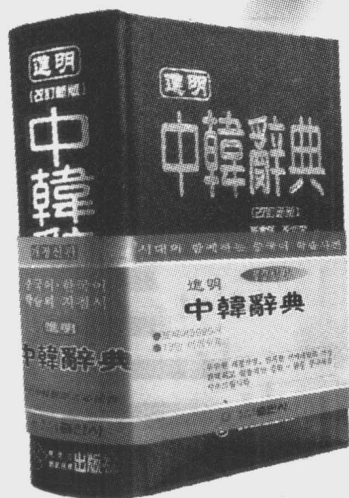


地址: 中国黑龙江省牡丹江市海浪路167号 邮编: 157000
订购热线/传真(주문전화/팩스): 0453-6423758

한국·建明 출판사 판본!

중국·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인입 출판

중국 도서시장서 熱賣中



787X1092MM1/32, 2614 페이지
양장본, 가격: 구판: 136.00원
신판: 158.00원

《중한사전》

- 적절성, 실용성, 합리성 등을 검증받아 한자 총 6990개를 선정.
- 최신어 대량 수록.
- 올림자의 한국음이나 훈을 병기하여 《옥편》의 역할을 함.
- 한자의 적절한 뜻풀이와 대역.
- 고대한어와 근대한어 어휘는 적당히 수록.

地址: 中国黑龙江省牡丹江市海浪路167号 邮编: 157000
订购热线/传真(주문 전화/팩스): 0453-6423758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新精品工具书

韩国语外来语辞典

130mmx185mm

朝鲜语描写词典

1644页 120.00元

朝鲜语成语谚语词典

130mmx185mm

1096页 65.00元

中韩辞典

130mmx185mm

2614页 158.00元

韩中辞典

130mmx185mm

2136页 136.00元



最新书

初级韩国语视听说 上、下册 96.00元

中级韩国语视听说 上、下册 94.00元

高级韩国语视听说 30.00元

韩国语视听说参考资料 48.00元

高级韩国语会话

25.00元



韩国语自学读本 上、下册
72.00元

성 구 편



가나다라를 배우다

(어떤 지식이나 기술 같은것을 배우는데서) 《겨우 첫걸음을 떼는데 지나지 않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그는 고전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가나다라를 배우기 시작하나 다름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였다.

가난(이) 둘다

낡은 사회에서: ① 몹시 가난하게 된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우리 집은 가난이 들었다. ② 필요한것을 얻기 어려울만큼 바르게 되다. ③ 농사가 잘 안되어 수확이 평년보다 적어지다. | 몹시 가물이 가난 든 해였지만 지주놈은 소작료로 쟁그리 뺏아갔다.

가난이 질기다

전날에: ① 살림이 가난해서 얼마 지탱해나가지 못할것 같으면서도 복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것이 몹시 질기다는 뜻으로 《가난속에서 고생 고생하면서 그러저럭 살아나가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② 《아무리 애써도 가난이 겹칠기게 들어붙어서 좀처럼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가난이 파고들다

더욱더 가난해지다. | 뻘뻘지게 일해도 지난날 조선사람들의 형편은 갈수록 가난이 파고들뿐이었다.

가느귀(가) 먹다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할 정도로 조금 귀가 먹다. | 우리 할머니는 가느귀가 먹어 큰소리로 말해야 들어

요.

가능(을) 보다

① 어떤 기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겨누어 보거나 살펴보다. || 밤물을 가능을 보다. || 크기를 가능을 보다. ② 형편이 어떤가를 헤아려 살펴보다. |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가능을 보았다.

가능(을) 잡다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정하다. | 그는 가위를 들고 한참이나 어떻게 잘라야 치마길이를 좀더 길게 낼것인가 가능을 잡고있었다.

가능(이) 가다

집작이나 헤아림이 이루어지거나 미치다. | 그는 긴장한 이때 런대장이 중대장인 자기를 왜 급히 부르는지 도저히 가능이 가지 않았다.

가도오도 못하다

한자리에 머물러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는 뜻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을 이르는 말. | 상법은 마구 격동되는 가숨을 주체할수 없어 가도오도 못하고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오도가도 못하다.]

가동(이)들 치다

세차게 가동질을 하다. | 어린애는 가동이를 치기에 재미를 붙인 모양이다.

가락(을) 내다

웃을 놀 때: 웃가락을 잘 던져서 생각하는대로 엮기도 하고 찢히기도 하다.

가락(을) 때다

① 노래나 춤의 첫 곡조나 동작을 시작하다. ② 흥이 나는 일의 첫 동작을 시작하다.

2 가락(이) 나다

가락(이) 나다

(일을 할 때 숨씨나 몸동작이) 흥에 겨워 활동이 생기다. || 일이 손에 익어서 가락이 날 정도로 되다.

가락(이) 맞다

(노래나 행동이) 흥겹고 멋들어지다. | 싹둑싹둑 가락맞게 무우를 썰어나가는 어머니의 숨씨를 순희는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 할머니도 춤판에 뛰어들어 가락맞게 어깨춤을 추었다. / 반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고 조직사업이 제이니 모든 일이 가락맞게 척척 풀려나갔다.

가로지나 세로지나

《가로의 쪽으로 되거나 세로의 쪽으로 되거나》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가리마(를) 타다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털을 랑쪽으로 곧게 갈라서 금을 내다. | 마파람이 불어와서 순이의 옷고름이며 가리마를 타고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카락을 날리었다.

가리산을 못하다

갈피를 잡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다. | 그래도 어떻게 된셈인지 두서는 가리산을 못하다가 이 거동을 보고 끼리끼리 수군거린다.

가리산이 들다

일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다. | 쌀봉지를 붙이는 손은 가리산이 자주 들기도 했다.

가래뿔이 서다

가래뿔이 생기다. | 그는 발바닥이 부르튼데다가 가래뿔까지 서서 다리를 옮길수 없었다.

가랭이가 지다

원뿔의 아래쪽이 갈라지다. | 개울은 여울목에서 가랭이가 저 흘렀다.

가랭이가 찢어지다(짜지다)

①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하여 몹시 부대끼는 상태를 형상적으로 이

르는 말. | 내 손에 권것 없이 뭘 좀 해볼가 하니 이렇게 제면볼고하고 가랭이 찢어지게 뛰어야 한단말이요. ② 힘이나 품이 모자라 일을 해나가기가 겨워서 몹시 부대끼는 상태를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가마를 태우다

그럴듯하게 올려추어 업어넘기다.

가만히 앉아있다

아무런 로력이나 활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

가면을 벗다

(본바탕이 그대로 드러나게) 거짓으로 꾸민것을 벗다.

가면을 쓰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런채하는 거짓태도를 꾸미거나 행동하다.

가물때(를) 벗다

(주로 농작물이) 가물로 말미암아 입었던 영향을 가시다. || 가물때를 벗은 심심한 강냉이포기들.

가물(을) 타다

(주로 농작물이) 가물의 영향을 받아서 잘 자라지 못하다. || 감자가 가물타서 몽팡 새들하다.

가물(이) 들다

① 날씨가 가물게 되다. ② (주로 농작물이) 가물로 말미암아 시들거나 마르다. [=가물이 지다. 가물(이)들다.]

가물이 지다

→ 가물(이) 들다.

가뭇(이) 들다

→ 가물(이) 들다.

가부(를) 툴다

책상다리를 하다. || 가부 툴고 있다.

가부좌를 겹다(툼다)

앉을 때 두발이 서로 무릎에 가게 하다.

가살(을) 부리다

교활하고 얄미운 말이나 행동을 일부러 하다. || 지주앞에서 아침하며 가살을 부리는 마름놈.

가살(을) 피우다

① 가살스러운 태도를 나타내다.
② 어린아이가 눈을 생긱거리며 귀염성스럽게 재물을 부리다. [=가살(을) 쓰다.]

가살(을) 떨다

경망스럽게 가살을 부리다.

가살(을) 빼다

몹시 가살스러운 태도를 짓다.

가살(을) 쓰다

→가살(을) 피우다.

가선(을) 두르다

(웃이나 뚫자리 같은것의) 가장자리 둘 천 같은것으로 싸둘리다.

가슴벽(을) 두드리다

마음의 충격을 강하게 주다. | 절절한 그의 말은 우리의 가슴벽을 두드렸으며 건설에도 일떠서게 했다.

가슴벽(을) 울리다

→가슴(을) 울리다.

가슴(을) 굶다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고 무엇으로 굶어내리는것처럼 강하게 자극하다. || 가슴(을) 굶는듯한 말마디.

가슴(을) 누르다

① (심한 감정상태에 있는) 마음을 진정시키다. | 어머니는 불안해지는 가슴(을) 누르며 빠른 걸음을 옮겼다.
② (불안하거나 불유쾌한 생각) 가슴(을) 답답하게 하다.

가슴(을) 달래다

(홍분하거나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다. | 웅척이는 흥분이 자꾸 앞서 두방망이질하는 가슴(을) 달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슴(을) 두드리다

마음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충격을 주다. | 그때의 감회가 되살아나

가슴(을) 두드렸다. [=흉벽(을) 두드리다.]

가슴(을) 뒤흔들다

안정된 마음을 흥분으로 몹시 설레이게 하다. | 어느때 없이 이 노래는 나의 가슴(을) 뒤흔들어놓았다.

가슴(을) 불태우다

마음속에 어떤 열의나 열정이 몹시 끓어번지게 하다. | 우리 공장의 로동자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충성의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온갖 난관을 박차고 마침내 생산정상화와 현대화의 과업을 실현하고야말았다.

가슴(을) 저미다

절절하고 애처로워서 가슴(을) 칼로 갈피갈피 베어내는것 같이 마음의 고통을 크게 느끼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 살인귀의 악착한 고문으로 그 열혈청년이 숨을 거두었다는 가슴(을) 저미는 비보가 군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켰다.

가슴(을) 조이다

어떤 근심과 불안으로 초조해져서 마음을 긴장되게 하다. || 모두가 안타까이 가슴(을) 조이며 기다리다. | 손에 땀을 쥐고 연공들의 모습을 가슴(을) 조이며 지켜보았다. /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찌랴 하고 가슴(을) 조이며 지켜졌던 우리들은 저 인기 안도의 숨을 내보냈다.

가슴(을) 짓누르다

(불안하거나 불유쾌한 생각) 가슴(을) 몹시 답답하게 하다. | 우리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시들은 불시에 사라지고 참고 참아오던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가슴(을) 쥐어뜯다

억울하고 기가 막혀 더없이 분해하다.

가슴(을) 쥐어짜다

(일이나 생각하는것이 뜻대로 되

4 가슴(을) 치다

지 않아) 《안타깝게 모래기며 온갖 궁리를 하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가슴(을) 치다

마음에 큰 충격을 받다. | 특히 가슴을 치는것은 유격지구아동단어린이들의 투쟁이야기였다. / 새 품종을 연구해낸 숨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쳤다. [=흉벽을 치다.]

가슴을 터놓다

→가슴을 털어놓다.

가슴을 털어놓다

가슴속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몽땅 내놓고 이야기하다. || 가슴을 털어놓고 하는 말. [=가슴을 터놓다. 가슴을 헤쳐놓다.]

가슴을 틀어쥐다(틀어잡다)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꽂 들어차게 하다. | 건설장들에 더 많은 강재를 보내자고 호소한 그 속모는 그들의 가슴을 틀어쥐고도 남음이 있었다. [=마음을 틀어쥐다(틀어잡다).]

가슴(을) 태우다

→속(을) 태우다.

가슴을 파고들다

①(어떤 생각이나 느낌) 마음속에 깊어지다. || 가책이 가슴을 파고들다. 갑자기 고독감이 가슴을 파고들다. ②(어떤 말이나 일) 마음속 깊이 생각키워지다.

가슴을 허비다

마음을 무엇으로 허비내듯이 아프게 자극하다. | 오늘밤은 선회의 울음속에 하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허비였다. / 허씨는 문득 가슴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이 기쁜 날에 머느리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싶은 생각이 가슴을 허비여서였다.

가슴을 헤쳐놓다

→가슴을 털어놓다.

가슴을 찌르다

마음을 강하게 자극하다. | 철이의 물기어린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찌른다.

가슴(을) 앓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안달아 하며 마음의 고통을 느끼다. | 그는 작업반이 사회주의 경쟁에서 지게 된 것을 두고 가슴을 앓고있었다.

가슴을 울리다

마음의 감동을 크게 일으키다. || 가슴을 울리는 그의 말. [=가슴벽을 울리다. 흉벽을 울리다.]

가슴을 ऐ이다

절절하고 애처로워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것과 같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 그의 귀전에는 마지막숨을 거두면서 했다는 아버지의 유혼이 가슴을 ऐ이며 다시금 쟁쟁히 울려왔다.

가슴이 내려가다

①(근심스럽거나 불안하던 느낌이 없어지고) 마음이 놓이거나 안정되다. ② 마음에 맺힌것이 없어지거나 풀리다. | 그 애들이 지난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걸 생각하면 가슴이 내려가지 않는다.

가슴이 내려앉다

(흔히 《덜렁, 덜렁, 철썩》과 같은 단어들와 함께 쓰여) 몹시 놀라거나 실망하여 맥이 풀리다. |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가슴이 달다

→속이 달다.

가슴이 덜컥하다(덜컹하다)

갑자기 놀라거나 몹시 충격을 받다. | 신철민은 불현듯 병원에 갔던 날 밤 일어나려다가 침대우에 얼굴을 박고 쓰러지던 안해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덜컹했다. [=가슴이 철렁하다(철썩하다).]

가슴(이)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

가슴이 무너져내리다

(큰 불행이나 슬픔으로 하여) 심한 충격을 받아 마음을 다잡기 힘들다.

가슴이 뭉클하다

큰 감격으로 눈물겨운 느낌이 가슴에 갑자기 치밀어오르는듯하다.

가슴(이) 미여지다

① 감격이나 흥분이 마음속에 꽂차고넘치다. ② 궁지와 행복이 가슴미여지게 솟구쳐오른다. ③ (몹시 안타깝거나 슬프거나 하여)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은 느낌이 마음을 꽂매우다.

가슴이 방망이질하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린다. | 나는 방금전에 한 자신의 불손한 행동이 죄송스럽게 생각되어 얼굴이 화끈 달고 가슴이 막 방망이질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자부심, 기쁨, 영예 같은 감정이 너무 커서) 흥분과 감격이 힘에 겨울만큼 가슴에 꽂차있다. ② 크나큰 궁지와 영예감으로 하여 가슴이 벅차다.

가슴(이) 부풀다

(몹시 즐겁거나 희망에 넘쳐서) 마음이 호뭇하여지다. | 오직 이 조국땅에 다시금 혁명의 일대 양양을 불러올 크나큰 포부에 가슴이 부풀었다. / 여울물소리처럼 잔잔한 어머니의 말은 어릴 때 고향의 어머니에게서 들은 옛말과 같이 무서운 환영도 떠오르게 하고 가슴부부는 꿈도 안겨주었다.

가슴(이) 불타다

마음속에 어떤 열의나 열정이 끓어번지다.

가슴이 서늘하다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 하여) 가슴속에 찬바람이 이는것 같이 선뜻하다.

가슴이 선통하다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 하여) 가

슴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것 같이 놀라 서늘한 느낌이 있다. |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선통하였다.

가슴(이) 설레다

(자부심, 기쁨, 영예 등으로 하여) 마음이 들썩하여 울렁이다. |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여 잠이 오지 않았다. / 헤어진지 20년이 되는 친아버지를 만나뵈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여 일손을 잡을수 없었다.

가슴이 섬찍하다

(무섭거나 끔찍한 일을 당하여)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것 같이 으슬하다.

가슴이 저리다

(자책의 마음과 속이 상한것으로 하여) 마음이 쭈시고 아프다. ② 파고드는 자책감에 가슴이 저리다. | 봉숙은 푸른 기운을 잃고 말라들어가는 벼포기들을 볼 때면 자기 살을 붙에 지지우기라도 하는것 같아 가슴이 저렸다.

가슴이 조이다(죄다)

(어떤 근심과 불안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긴장하여지다.

가슴이 철렁하다(철썩하다)

→ 가슴이 덜컥하다(덜컹하다).

가슴이 콩알만하다(해지다)

불안스럽고 초조하여 가슴이 콩알만큼 좋아들었다는 뜻으로 마음을 펴지 못하고있음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마음이 콩알만하다 (해지다).]

가슴이 타다

→ 속이 타다.

가슴이 터지다

(고통스럽거나 격한 감정이 차고 넘쳐서) 가슴이 헤쳐지고 갈라지는것 같이 느끼다. | 나는 복받치는 감격에 가슴이 터질듯하였다. / 왜놈들한테 세 아들을 다 빼앗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진다.

6 가슴이 트이다

가슴이 트이다

(무엇인가 깨달아서) 마음속에 맺힌 것이 풀리어 환해지다. | 당이 밝힌 방침을 접하니 가슴이 탁 트이고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 환히 내다보이는 듯하였다. [=가슴이 열리다②. 속이 열리다②.]

가슴이 한줄만하다(해지다)

(잘못을 저질러서 또는 무슨 일이 드러나거나 잘못될까 두려워) 조마조마하게 마음을 조이다. | 나무무에 기여올라간 어린것을 보자 어머니는 그만 가슴이 한줄만해져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마음이 한줄만해지다. 속이 한줄만하다(해지다).]

가슴이 후련하다

가슴이 탁 트일듯이 마음이 시원하다. | 분기계획을 한달이나 앞당겨 끝내고 공장문을 나선 그는 가슴이 후련해움을 느꼈다.

가슴이 흐뭇하다

마음에 만족스러운 느낌이 가득하다. | 계획을 앞당겨 끝낸 그는 가슴이 흐뭇하여 기대를 정비하는 동안 내내 코노래를 불렀다.

가슴이 꺼지게(꺼지도록)

→ 땅이 꺼지게(꺼지도록)①.

가슴이 떨리다

① 몹시 겁나거나 두려워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다. | 너무도 뜻밖에 벌어진 엄청난 사실 앞에서 나는 가슴이 떨려 그들이 묻는 말에도 변변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② 몹시 흥분하여 진정되지 않다. | 그 깊은 뜻이 가슴에 사무쳐오자 나는 그만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져 급히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가슴(이) 뜨겁다

① (깊고 큰 사랑과 배려를 받아) 그 고마움으로 마음의 감동이 크다. ② (감동적인 사실에 감화되어) 가슴속의 감격이 크다. | 혁명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그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곤 하였다.

가슴이 뜨끔하다

(정신적으로 센 자극을 받아) 마음의 충격을 심하게 느끼거나 마음에 걸리는 느낌이 있다. | 봉숙은 낮에 있던 일 때문에 황종구가 부른 것이냐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끔했다.

가슴이 빠근하다

가슴이 어떤 느낌으로 꽉 차서 빠개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 | 창억은 장대설이 가버리자 그의 텅텅하고 덜렁덜렁 보이면서도 진정이 뻗는 사랑에 가슴이 빠근해져서 한동안 움직일 줄 모르고 앉아있었다.

가슴(이) 뿌듯하다

홍분과 감격, 공지, 만족감 같은 느낌이 가득하다. | 기름진 농장벌을 트랙터로 갈아번져나가는 용수는 크나큰 긍지로 하여 가슴 뿌듯해움을 느끼었다.

가슴(이) 쓰리다

마음이 상처를 굼어내는 것처럼 괴롭다.

가슴이 찢리다

자기 스스로 몹시 가책을 받다. [=마음이(에) 찢리다.]

가슴이 째하다

커다란 감동이 가슴을 울리며 속이 빠근하다.

가슴이 아리다

몹시 가엾거나 측은하여 마음이 알알하게 찢르는 것같이 아프다. | 그때 나는 그의 험상궂은 손을 열핏 보게 되었는데 참 가슴이 아리었다.

가슴(이) 아프다

슬프거나 안타까와 마음이 몹시 쓰리다. || 가슴 아픈 손실을 내다. | 그는 먼저 간 동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 간고한 시련의 고비를 수많은 넘어야 하는 혁명투쟁과정에는 참기 어

려운 가슴 아픈 희생도 있을수 있다.

가슴이 열리다

①안타깝고 답답하던 생각이 시원하게 풀리다. | 불안과 근심으로 답답했던 가슴이 확 열리고 온몸에서는 신심과 용기가 샘처럼 솟구쳐올랐다. ② →가슴이 트이다.

가슴에 걸리다

→마음에 걸리다.

가슴에 마치다

가슴속에 무엇이 치받치듯이 마음에 충격이나 자극을 받다. | 자기보다도 동무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진정이 가슴에 마쳤다.

가슴에 못을 박다

두고두고 잊을수 없는 원통한 일을 겪음으로써 가슴 아픈 생각을 마음속 깊이 맺히게 하다. [=마음에 못을 박다.]

가슴에 맺히다

송구스럽거나 언짢거나 깨로운 생각이 마음에 자리잡고 묻치다. [=명치에 걸리다. 명치에 맺히다.]

가슴에 새기다

→마음에 새기다.

가슴에 짊이다

→마음에 짊이다.

가시(가) 돋히다

(주로 말이나 글, 눈길과 관련하여 쓰이며) 《남을 공격하거나 불평불만을 품은 뜻이 완연히 나타나다》를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 가시돋힌 볼부는 목소리. 가시돋힌 비양조. 가시가 돋힌 질문. 가시돋힌 눈길. | 진명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가시가 돋혀있었다. [=가시(가) 박히다①.]

가시(가) 박히다

① →가시(가) 돋히다. | 겉으로는 웃고있었으나 대답에는 가시가 박혀있다. ② (말이나 눈길에) 악의가 들어있다. || 가슴이 섬적해지는 가시박힌 말.

가시(가) 세다

고집스럽고 양갈지다. | 보기에는 감때사납구 가시가 센 사람같지만 속은 무척 곱구 여린 사람이다.

가새다리(를) 치다(지르다)

→가새(를) 치다(지르다)①.

가새(를) 치다(지르다)

① (주로 부정, 반대 또는 다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X》모양의 표식을 하다. [=가새다리(를) 치다(지르다). 가새표를 치다(지르다).] ② 어긋매껴 엇갈리게 하다.

가새표를 치다(지르다)

→가새(를) 치다(지르다)①.

가지가 벌다

서로 사귀던 사이가 멀어지거나 나빠지다.

가지고 놀다

→취고 놀다. | 그는 포승줄에 묶여 마차에 짐짝처럼 실려 호송될 때에도 장상민을 공기돌 다루듯 가지고 놀았다.

가지(를) 치다¹

나무, 풀의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 버리다. | 과일나무들은 해마다 가지를 쳐주어야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열린다.

가지를 치다²

① 원줄기에서 가달이져나간다. | 몽강산줄기에서 가지를 쳐뺏어내린 수많은 산발들사이에 꽤운 골짜기들 중에서도 가재골은 제일 깊은 골안이라고들 했다. ② (화재나 사건 같은 것이) 원줄기에서 판 방향으로 자꾸 갈라지다. | 그러다보니 그의 소박한 질문에 비해볼 때 자신의 말이 해학적인데로 가지를 쳤다는 위우침이 들었다. ③ 통일된 하나의 조직체안에 이색적인 판 갈래를 이루거나 판 갈래가 생기다. [=가지(를) 뺏치다.]

가지(를) 뺏치다

→가지(를) 치다² | 소년은 큰 골짜

8 가재걸음(을) 치다

기에서 가지를 뺀진 결골짝을 가리키고는 서둘러 걸어나갔다. / 차기용이가 한마디 하면 또 박홍덕이가 다른것을 보태고 그것이 다시 가지를 뺀쳐서 다른 이야기로 번져나갔다.

가재걸음(을) 치다

① 가재모양으로 뒤걸음질을 하다. | 겁나서 가재걸음을 쳤다. ② 두렵거나 마음에 안들어 뒤로 물러서다.

가재(들) 치다

가재가 뒤걸음질을 잘한다는데서 《샷던 물건을 도로 무르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가탈(을) 부리다

가탈스러운것을 하거나 일부터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굴다.

가탈(이) 나다

일이 순조로이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나 조건이 생기다.

가하(가) 나다

지정한 액수보다 예상외로 돈이 더 쓰이다.

가하(가) 지다

지정한 액수보다 예상외로 돈을 더 쓴 상태에 있게 되다.

가꾸로 박히다

바닥을 향해 물체가 거꾸로 떨어지다.

가울다랗쥬 같다

겨울먹이를 장만하느라고 열매를 부지런히 몰아다가 감추어두는 가울철의 다람쥐와 같다는 뜻으로 재물을 욕심스럽게 모으는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

가위다리를 치다

부정, 반대 또는 그 어떤 표식을 위하여 그 대상에 가위다리모양으로 <X>를 치다.

가위(들,애,가) 놀리다

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무서운

일을 당하였을 때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모대기다. | 어머니는 웬일인지 온몸이 가드라들면서 꼭 꿈에 가위놀린것처럼 소리 한마디 지를수 없었다. /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고있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가위를 놀렸다. / 민경호는 가위에 놀리는 불길한 악몽에서 깨어나며 놀라서 물었다. ② 힘에 벅찬 일을 맡거나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바를 몰라하다. | 대문안에 들어섰을 때 그는 너무 어마어마한 광경에 그만 가위가 놀렸다. ③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가슴이 답답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목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다.

가위춤을 추다

빈가위를 벌렸다 오무렸다 하다.

각불(을) 때다(불다)

따로따로의 살림을 하다. | 그들은 한울안에 살았으나 서로 각불을 때고 살았다.

각(을) 뜨다

잡아놓은 네발짐승의 몸에서 대가리, 네다리 등을 따로따로 잘라내다.

각을 뜯어내다

《각을 뜨다》를 더욱 힘주어 이르는 말.

간격을 두다

① (두 대상이나 현상사이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일정한 사이가 있게 하다. | 종소리가 30 초의 간격을 두고 울려왔다. / 대렬과 대렬사이에 한메터의 간격을 두었다. ② (사람을 사귀는데서) 좀 멀리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차이를 두다. | 혁명동지들사이에서는 조그마한 간격도 두지 않는다.

간격(이) 없이

간격을 두지 않고. | 일꾼들은 아래에 내려가 대중과 서로 간격이 없이 잘 어울리며 대중과 친식도 일도 같이 하면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냈다.

간교를 부리다

간교한것을 일부러 하다.[=간교를 피우다.]

간교를 피우다

→간교를 부리다.

간능(을) 부리다

간능한것을 하다.

간다온다 없이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술그머니. [=온다간다 없이.]

간담을 서늘케 하다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주어) 간담에 찬바람이 이는것같이 섬찍한 느낌을 가지게 하다. || 원수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다.

간담을 털어놓다

→간담을 헤치다.

간담을 헤치다

깊이 품은 생각을 조금도 숨김없이 이야기하다. || 마주앉아 간담을 헤치고 이야기하다.[=간담을 털어놓다. 간담을 열어놓다.]

간담을 열어놓다

→간담을 헤치다.

간담이 서늘하다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 하여) 간담에 찬바람이 이는것같이 섬찍하다.

간도 모르다

일의 속위를 짐작도 하지 못하다. || 간도 모르고 덤비다.

간사를 부리다

간사스러운것을 일부러 하다.[=간사를 피우다.]

간사를 피우다

→간사를 부리다. | 한번은 불시에 길에서 마주 부닥쳤는데 그놈은 당황하여 선생님 일이 참 안되였다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시느냐고 간사를 피우고는 도망치듯 달아나던 일이

회상되시였다.

간사를 떨다

경망하게 간사스러운것을 하다. | 《어서 이리 올라오시오. 봉이아버지는 늘 봐야 저렇게 사람이 직심스럽다니까.》 하고 화월이가 간사를 떨며 말했다.

간살(을) 부리다

간사스럽게 아양을 떠는 행동을 일부러 하다.[=간살(을) 피우다.]

간살(을) 지르다

간살을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간막이를 건너지르다. | 한칸짜리 방을 간살을 질러 두칸으로 만들었다.

간살(을) 피우다

→간살(을) 부리다.

간살을 떨다

경망스럽게 간살을 부리다.

간장국에 마른다

찬 간장국을 먹고 몸이 마른다는 뜻으로 오래 짬들어서 바짝 마르고 단단함을 비겨 이르는 말.

간장을 녹이다

① 어떤 대상이나 사물현상이 마음에 들어 매우 흡족하게 하다. ② 비통하고 애절하여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다.

간장을 말리다

→애(를) 말리다.

간장을 사르다

→애를 태우다. | 어미청과에 대경왕 《재상이 천생이 너뿐 아니어든 어찌 편협한 말을 발하여 어미 간장을 사르냐뇨.》(교전소설 <홍길동전>)

간장을 태우다

→애를 태우다.

간장이 녹다

① 어떤 대상이나 사물현상이 마음에 들어 매우 흡족하다. | 그 가수가 멋들어지게 넘긴 민요가락에 간